

보다
BO DA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구문화재단

BO DA 2016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04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보다
BO DA

2016 Bupyeong Band Festival



vol.04

부평구문화재단



바라보며 행복합니다

어느 좋은 가을날, 많은 사람들이 부평공원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느새 화려한 무대 조명과 심장을 때리는 비트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흥겹고
들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설레고
느끼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음악 한 모금의 행복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부평구문화재단은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ontents

BODA vol.04

시선



04

MAN FROM ART

부평울스타빅밴드
지지 않는 별들

생각



10

ART THINKING

하반기 부평문화포럼
부평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14

ART SCENE

생활문화를 디자인하는
부평생활문화센터

18

LOOK INSIDE

문화예술 청탁금지법

20

LOOK AROUND

예술산업과 마케팅

인사이드 부평



26

VIEW FINDER

영화, 예술을 만나다
부평문화사랑방

30

ZOOM IN 1

과거, 현재, 미래를
노래하다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

34

ZOOM IN 2

"Sing Sing Sing,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노래해요"

38

ZOOM IN 3

눈꽃처럼 빛나는
예술, 자선, 축제
3r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42

NEWS

부평나눔카드
제휴 협약식 개최 외

미리보다



48

WHAT'S NEXT?

우리 국악으로 여는
<2017 신년음악회> 외

54

CALENDAR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음악회 외

INFO



61

INFO

부평 올스타빅밴드, | 지지 않는 별들



30년 경력의 프로그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눈을 반짝인다.
반 백 년 경력의 교수와
함께 연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 백 년 교수는
나이 들었다고 유세를 떨지 않는다.
단지 빙그레 웃고는
무슨 소리냐며 손사래를 칠 뿐이다.

교수가 교수를 알아본다고
같은 무대에서 그저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만으로 연습에 최선을 다한다.
1%의 실수도 용인되지 않는 귀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연주자는 50년 경력이라 해도
공부할 것이 또 보이고
더 구현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한다.

부평올스타빅밴드는 교수들의 각축장이니
그분들의 열정이 담긴 예술혼만으로도
공기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정도다.

부평올스타빅밴드는
청년의 정신과 감각으로 활발하게
생업으로, 봉사활동으로, 취미활동으로
빛나는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50년 전 부평을 빛내던 크고 화려한 별.
군대에서, 무대에서, 삶에서
예술가 정신으로 살았던 분들.
2017년, 부평에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에서

결코
지지 않는
별로
빛나고
있다.

김휘동(색소폰)



인천기계공고 관악부로 시작해 해군군악대를 거쳤다. 연수구 연수구립관악단에서 클라리넷을 배우다 5년 전 색소폰을 시작했고, 해군동호회 색소폰 앙상블팀에서 활동했다. 얼마 전 부평울스타빅밴드에 합류했고 현재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며 음악을 병행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음악을 해서인지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받는다. 부평울스타빅밴드에서는 '젊은이'에 속한다. 밴드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 모두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고 실력이 뛰어나다.

이동훈(알토 색소폰)



고등학교 밴드를 시작으로 군악대에서 활동했으며, 제대 후에도 꾸준히 색소폰 연주를 했다. 가수 반주, 악단, 클럽 등 민간 무대에서 활동을 해왔고, 어느덧 30년의 경력이 쌓였다. 그러나 부평울스타빅밴드 안에서는 명함도 못내밀 만큼 정쟁한 분들이 많고 미흡해서 늘 배우는 마음으로 연습에 임한다. 밴드의 초창기 멤버로 10여 년의 세월을 함께 달려왔다. 음악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마음껏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다. 음악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술이며, 예술에는 끝이 없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기에 연습에 집중한다.

김정석(알토 색소폰)



올해로 색소폰 연주는 40년을 바라본다. 초등학교 합창부, 중학교 밴드부로 활동했고, 이후 형편이 어려워 대학 대신 군대의 길을 선택했다. 정통 있는 해군 군악대에서 25년간 해군 군악대장 생활을 하는 동안 연주에 푹 빠져 지냈으며, 외국에서도 연주 활동을 활발히 했다. 지금은 색소폰과 클라리넷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 중이다. 부평울스타빅밴드 연습 댄 맡고하게 차려입고 실천처럼 연습하고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박경균(색소폰)



고등학교 1학년 때 관악 합주부에서 색소폰 연주를 시작했다. 이후 음악을 전공하며 입대 후 해군 군악대로 활동했다. 현재는 음악 강사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 팀에 합류했는데, 연주하는 분들의 연배나 경력이 스윙, 재즈의 난이도와 수준을 말해준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연주라 귀로

듣고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훌륭한 연주는 많이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잘 한다는 느낌을 넘어 음악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 그 동안 접하지 못했던 음악, 50~60년대 음악을 들으며 그들을 따라가고 싶다. 부평울스타빅밴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설이다.

김영수(트럼본)



중학교 3학년 트럼본을 시작해서 연세대에서 기악을 전공하고 경음악단 소속으로 활동했다. 당시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유명한 연수성악단의 일원으로 꾸준히 연주해 왔다. 이후 악단을 탈퇴하고 1982년에 일본으로 넘어가 33년 동안 재즈와 팝 장르의 피아노 연주와 노래를 병행했다. 2011년에 귀국하여 부평울스타빅밴드의 구성원이 되었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 음악의 교육은 아직 길길이 멀다. 그러나 부평울스타빅밴드 같은 단체가 생겨나는 등 음악에 대한 활동들이 활발하다는 것은 한국 음악에도 희망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범기(트럼본)



33년 동안 방송국에서 빅밴드로 연주하다가, 2011년 정년퇴직한

후 밴드에 들어오게 되었다. 군대에 입대해서 처음 트럼본을 붙게 되었다. 부평울스타빅밴드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잘 맞았다. '역시 프로'라고 생각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음악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연주를 할 때면 옛 생각이 떠오르고 마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평생 연주만 해왔기에 앞으로도 건강하게 밴드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서태우(트럼본)



고등학교 시절 트럼본으로 음악을 시작했고 해병대 군악대를 거쳤다. 제대 후 사회에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집안의 반대로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음악과 점점 멀어졌다. 나이가 든 후 친구들의 권유로 4~5년 전 음악을 다시 시작했다. 한참 음악을 멀리한지라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 부평울스타빅밴드 멤버로 활동하면서 서로 배우고 익히며 호흡을 맞춰 나갔다. 날이 갈수록 음악 단체의 활동 영역이 좁아져 고민이었는데 부평울스타빅밴드로 활동할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할 뿐이다.

김인성(트럼본)



취미로 시작한 고등학교 밴드 활동을 계기로 해병대 군악대에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음악 인생만 40년이다. 현재는 가구점을 운영하며 밴드 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음악은 평생의 낙이자 업이라 생각한다. 9월 비오는 날 부평공원에서 열린 공연이 인상적이었다. 관객의 호응도 좋았고, 비와 음악이 어우러져 멋진 분위기를 냈다. 라이브 공연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같은 장르의 음악을 들어도 음악의 깊이가 다른데 부평울스타빅밴드는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 깊이가 다르고 호흡을 맞추는데 있어서 훌륭하다. 나 또한 그런 음악을 하고 싶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밴드에 남고 싶다.

박희철(트럼펫)



중학교 때 트럼펫을 시작해 고등학교, 대학교, 공군 군악대까지 트럼펫 연주를 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연주를 하다가 5년 전부터 일선에서 물러나 음악에만 집중하고 있다. 부평울스타빅밴드는 군대, 선후배, 사회 등 지인들의 소개로 작년에 합류했다. 음악을 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음악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긍정적이 된다.

최영운(트럼펫)



1969년 제대한 후 미8군 음악을

시작했다. 미8군 음악은 화양, 유니버설, 동양이라는 프로모터가 유지선을 공급했는데 나는 화양 소속으로 애스캅에 들어갔다. 당시 애스캅은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직접 오디션을 봤는데 AA부터, D클래스까지 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나는 애스캅, 문산 등에서 A, B 클래스를 받고 연주하며 일반 쇼에도 연주했다. 미8군 음악하는 사람들은 애스캅을 거의 거쳐 왔다. 당시에는 녹음실 일이 많았는데 가수들 녹음에 밴드 연주가 필수적이었다. 방송사도 전속 악단이 있어서 많이 불러다녔다. 당시에는 밴드팀을 섭외하려면 마스터에게 선금을 주고 데려갈 정도였다. 빅밴드가 사라진지 오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빅밴드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니 너무 좋다. 옛날 향수도 느낄 수 있고 함께 연주하면 저절로 힘이 난다.

김인섭(트럼펫)



중학교 밴드부가 생기면서 음악을 시작했다. 배운고 3학년 때 전국 콩쿠르에서 1등을 해 한양대 특기 장학생으로 진학했다. 군악대로 제대하고 중앙방송 전속악단으로 재직했으며 MBC에서 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음악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평에서 빅밴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지 모른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지휘자의 지휘 아래 즐겁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쁜 일이다.

양재관(기타)

창립멤버로 현재까지 밴드활동을 하고



있다. 1976년에 처음 음악을 시작했고 학교 졸업 후 5인조 그룹사운드에서 활동했다. 산에서 1년간 연습했고, 이후 오디션을 보며 활동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클럽에서 쇼 연주를 하며 지냈다. 평생 기타를 연주했지만 여전히 배움에 목이 마른다. 밴드로 활동하며 음악실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

김기용(베이스)



18살, 고등학교 시절 처음 음악을 접했고 이후 무고동 클럽에서 밴드 활동을 했다. 지금까지도 연주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기회가 닿고 능력이 될 때까지 음악과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음악은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자 이유인데 이곳에 오면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 좋다. 밴드 활동에서 혼자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면 합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맞추어 나가고 부족한 장르의 연주는 많이 듣고 연습하며 온전히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습한 만큼 공연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변영학(드럼)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부터 생계를 경제를 책임져야 했고, 그때부터



밤 무대에서 연주를 시작했다. 실력이 미흡해 낮에는 배우고 밤에는 일을 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공부와 연주를 병행했다. 공군 군악대에 들어가 드럼 연주를 했으며, 제대 후에는 밤 업소와 부평 클럽, 미군부대에서 공연을 했다. 1988년 파란만장했던 음악 인생을 끝으로 20여년 간 음악을 멀리 했다. 작년 9월, 단장의 권유로 밴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음악은 나에게 청춘이다. 어느 날 공군 군악대 행사가 있었는데 전역자들과 현역이 함께 하는 공연이었다. 1부에 선배가 드럼연주를 하고 2부에 내가 했는데 1부에서 공연한 선배의 나이가 82세였다.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그때 절심했다. 그보다 1년 더해서 83세까지 음악을 하겠다고 말이다.

김성수(키보드)



초등학교 때 금관악기인 바리톤으로 밴드 활동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군악대에서 연주를 계속했다. 대학교 때 부전공으로 피아노를 쳤는데, 제대 후 인천 부평 클럽에서 키보드를 연주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음악을 해서인지 추억도 많다. 나에게 음악은 공기와도 같다.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의 장르에도 변화를 주고 싶고, 앞으로 더 오래도록 음악을 하고 싶다.

해방 이후 주둔한 부평의 애스컴(ASCOM 미군수지원
사령부)은 현재 케이팝(K-POP)을 비롯해 서양식
대중음악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부평 애스컴 미8군 클럽에서 연주하던
하우스밴드들은 대부분 스윙재즈를 연주하였던
음악적 특성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많은 브라스 악기
연주자들을 배출하였다. 부평올스타빅밴드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 부평만의 특화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고자 2005년 부평에서 활동하던
연주인들을 중심으로 창단하였다. 부평올스타빅밴드
단원들은 평균 4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연주자들로서 대부분 30년 이상 악기를 연주한 전문
연주인들이며 각자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갖고 지금도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단원들
중에는 1950~70년대 부평애스컴 미8군 클럽에서
연주하였던 연주인들도 있어 부평올스타빅밴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평에서는 애스컴 시절의 음악과 이야기를
담은 공연 등이 많이 기획되어 시민들을 찾고 있다.
애스컴에 뿌리를 둔 부평올스타빅밴드는 지금, 그때의



모습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의 음악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곡을
끊임없이 만들어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40~50년 전 음악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감성과 정서를 잘 가미하여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휘자 임명철 씨는 말한다. 그의
말처럼 부평올스타빅밴드는 과거의 향수만 자극하는
추억 레퍼토리를 읊는 것이 아니라 눈바람에도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카멜레온처럼,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이자 최고의 빅밴드로 당당하게 자리하고자
절차탁마(切磋琢磨)하고 있다.



★ INTERVIEW #2



“음악적 나이는 거꾸로 먹는다”

경력이 많은 개개인이 모인 만큼 지시보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이 좋아 모인
사람들이 만큼 결속력도 좋다.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음악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나,
함께 연습하며 서로 영향을 받으면 스타일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밴드에서 젊은 사람이라 불리는
이도 50대 중반에서 60이 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배울 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기쁘고
감동이다.

우리 밴드는 완벽한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상황을 이겨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연주에 나타난다.
개인적인 이유로 매일 연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연습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미8군에서 하우스밴드는 해당 클럽에서 한 달 동안
연주하는 것을 말하고, 오픈 밴드는 주말에 아무 곳이나
가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모두 경험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주를 시작했는데, 락앤키라는 유행기
씨가 있는 쇼 밴드에서 고고음악을, 그룹사운드가 유행일
때는 조용필 밴드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다. 핫사운드라는
그룹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는데, 그때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등 악기를 전반적으로 다뤘다. 악기마다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휘자는 악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작곡 공부도 꾸준히 했다.
합창을 지휘하면서 더욱 작곡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 전엔 연주가 음악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에
그쳤었다. 그때는 연주를 하던 지휘를 하던 단지 음악을
‘듣는 음악’이라는 틀 안에 가둬버렸던 것 같다.

앞으로 우리 밴드만이 할 수 있는 창작곡을 올리고
싶다. 부평올스타빅밴드는 늙고 은퇴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다. 열정으로 음악을 사랑하고 알고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재단에도
감사드리며, 꾸준한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10년의 세월이 쌓였다. 그만큼 실력도 늘었다.
음악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활동해왔다. 마음이 맞아야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화합이 잘되고 있으니 걱정은 없다. 다만 경력이
오래다 보니 각자의 확고한 음악 세계가 있어
그런 부분들이 상충하지 않게 자주 소통하려 한다.
음악적으로 풀어내며 호흡을 맞추는 것이 노후다.
10년이 넘다 보니 각자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져
있다. 단장은 행정적인 일을 맡고
지휘자는 음악적인 부분을 맡고 있다.

부평의 옛 애스컴을 보면 스윙 음악이 주를 이뤘다.
즉 부평의 음악적인 정체성이 스윙 재즈 음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평의 삼릉이라는 곳에 음악인들이 모여
살았다. 모두 스윙 음악을 하는 사람들로 트럼펫,
색소폰을 연주하는 이들이 주를 이뤘다. 부평은 브라스
연주가 많았다. 부평 출신의 브라스 연주자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악단을 만들기도 했다. 부평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지역의 문화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체의 이름에 부평이라는
이름을 넣은 이유는 부평에 거주해서가 아니라
부평의 음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가자는 취지에서였다.

최근 교육 사업을 계획 중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구성과 똑같은 빅밴드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
브라스 연주자가 현저히 줄었다. 초등학생들이 브라스
악기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가르치고 있다.
임선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시니어 빅밴드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부평올스타빅밴드는 단원 누구나 강의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원이 많아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정유천
|
단장

“부평을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다”

부평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



지난 10월 26일,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에서 ‘부평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6 하반기 부평문화포럼이 개최되었다.

최근 새로운 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의 등장으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콘텐츠 유통, 홍보, 커뮤니티 등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에 부평구문화재단도 부평생활문화센터와 함께 부평만의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실제로 올해는 부평구가 5년 동안 음악·융합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원년이다. 부평구문화재단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실행하면서 부평아트하우스 내에 음악산업센터를 마련해 음악산업인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온라인 플랫폼은 음악 유통망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는 근거지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포럼 주제 발표에 이어 인하대 문화콘텐츠학과

백승국 교수를 좌장으로 3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홍승기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를 저작권 중심으로 제안했다. 이춘우 부장은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 거래 사이트와 같은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플랫폼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부평과 인천 시민이

“부평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 예술가 DB가 아닌 홍보와 동시에 해외 관련 분야와의 네트워킹과 유통까지를 바라보며 효율적인 유통망 구축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박옥진 대표이사

주로 이용하면서도 범위를 넓혀 주변의 문화 플랫폼과 연계하도록 조언했다. 인천 지역 공연예술가 유세웅(세웅 대표)은 부평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아티스트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플랫폼의 체계적 구성을 통해 극복 방안을 찾도록 제안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부평만의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은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 공통된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부평 아트 플랫폼만의 유니크한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은희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팀장의 조언처럼 퀄리티 높은 공연을 접근성 낮은 지역에 소개해서 문화예술 향유를 높이는 일들이 부평 문화예술 플랫폼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이를 위해 플랫폼의 목적과 부평 문화예술단체들의 니즈, 부평 지역민의 니즈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부평은 문화예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출발선에 서 있다. 부평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예술가 그리고 시민들의 니즈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소통의 노력, 그리고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다.

왜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인가?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플랫폼은 ‘구획된 땅’이라는 뜻의 ‘플랫’과 ‘방식’이라는 뜻의 ‘폼’의 합성어다. 온라인 플랫폼은 무엇을 의미할까. 초창기에는 단순히 서비스 운영체제를 의미했으나 현재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업 방식으로의 플랫폼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은 어떤 형태이건 온라인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무료 이용 및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새로운 가치와 문화가 창출되는 선순환 체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문화예술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생적으로 온라인 생태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전시 관련 플랫폼으로 미술품의 세세한 것까지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구글아트프로젝트’가 있다. ‘아트 인사이트’는 문화예술계의 온라인 홍보의 장으로 좋은 콘텐츠를 무료로 홍보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재 160개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하여 예술가와 소비자 사이의 소통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 정보 제공의 플랫폼으로 ‘더 아프로’가 있다. 국제공연, 국제교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하는 사이트다. ‘컬처 유니버’는 대학생들이 문화마케팅과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세미나 등을 하는 스터디 모임이다. ‘마이뮤지테이스트’는 팬들에게 원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제공하고 아티스트에게는 콘서트 기회, 프로모터에게는 안정적 수익구조와 지속적 콘서트의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의 기대효과는 가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 증대로 문화예술 향유가 확대되고 개방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커뮤니티를 생성할 수 있다. 연결 장소를 제공하므로 새로운 가치 창출과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

앞으로 좋은 창작자가 발굴되고 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공공 온라인 플랫폼 사례 예술경영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



김은희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팀장

최근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플랫폼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플랫폼에 주목하는 이유는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 기업이 급성장한 것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니즈에 부응해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년간 펼쳐온 더아프로(The Apro), 예술경영 웹진, 서울아트마켓, 공연예술통합 전시망 등은 문화예술 관련 온라인 사업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먼저, 공연예술 국제교류 전문사이트인 ‘더아프로’는 한국공연예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오픈했다. 국외 현장 수요가 높아졌으나 해외에서는 한국 작품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찾거나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다. 이에 정보를 얻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작된 것이 더아프로다. ‘예술 경영’ 웹진은 2008년 처음 국내외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술 현장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작되었다. 위클리 웹진에서 트렌드를 반영한 웹툰 등으로 생생한 공연예술 현장을 전달하고자 공연 현장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문을 즉주 발행하고 있다. ‘서울아트마켓’은 한국공연예술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진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공연예술마켓으로 매년 10월, 5일 동안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일련의 한정 기간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적 고민이 있었다. 그 방안으로 올해부터 서울아트마켓 홈페이지에 한국공연예술 DB 메뉴를 개설했다. 또 박스오피스나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공연예술통합전시망 코피스’가 있는데,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공연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1년도에 전시망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4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부평의 문화예술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플랫폼의 목적은 무엇인지, 부평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니즈, 부평 지역민의 니즈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민간 온라인 플랫폼 사례 공연유통플랫폼 ‘SAYHO’



김인호

SAYHO 대표

SAYHO는 뮤지션이 직접 등록하고, 개인이나 프로모터, 기업들이 뮤지션을 선택하는 서비스다. 매칭 프로세스는 작가, 행사를 원하는 고객이 직접 공연 요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뮤지션에게 전달하면 뮤지션들이 공연 요청서를 받아 보고 건적을 제안하는 식이다. 이는 고객과 뮤지션이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 상위 메이저 기획사는 자본력이 풍부하므로 사업 확대가 용이하지만 군소기획사나 인디뮤지션은 수익창출의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인디 뮤지션, 트로트 가수, 발라드 가수 등을 직접 고객들에게 연계해주는 목적으로 축제, 작가, 기업 행사, 버스킹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좌장 백승국 — 인하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토론자 홍승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준우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사업부장
유세음 — 문화공작소 서울 대표



백승국 플랫폼은 하나의 공간이자 장소이며 형식은 폼, 스타일, 형식 기능 역할인데 이러한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킬러 콘텐츠로 유통하는 기존 마케팅 PR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요즘 최대 화두다. 문화예술에 대한 플랫폼은 문화콘텐츠 사업 중에서도 공공성의 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는 플랫폼 공공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방인의 자리이다. 첫 번째 토론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산업에 저작권과 관련한 활동을 활발히 하는 홍승기 교수로 문화예술 관련 저작권부터 부평이 작업할 때의 구체적 방안까지를 들어보자.

홍승기 온라인 플랫폼은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다. 법적 분쟁의 백과사전인 플랫폼, 저작권뿐 아니라 초상권 등 사진, 영상을 탑재한 순간 법적 분쟁 소지를 안고 있다. 저작권은 말쑥이 많은 강한 권리이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 상표권은 길어야 20년이다. 그런데 저작권은 생존 기간+70년이다. 10대에 작품을 만들면 150년 보호가 가능한 셈이다. 권리 성격 자체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19세기 말에 베를린 협약에 의해 권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생겼다. 업로드를 하면 전송권이 문제가 된다. 전송권은 권리자, 저작권자의 권리에요, 누군가가 사업자나 이용자가 업로드 하려면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 영상을 사용하고 싶은데 영상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사진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진 촬영지,

등장인물 조상이 있고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 것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와 관련해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자는 권리가 나왔다. 이는 과거에 없던 것으로 2011년도에 한미FTA 때 들어 온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첫째, 공익 목적인지 영리 목적인지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둘째, 저작물의 종류를 보자는 것이다. 셋째, 원저작물의 핵심을 건드렸는지, 많이 건드렸는지 적게 건드렸는지. 네 번째, 원저작물이 시장을 건드렸냐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미국법에서 나왔고 미국에서 축적되어 온 판례로 한미FTA에 의해 적수입했다. 이걸 포괄적인 규정이다. 과거에는 이 네 가지 요소로 면책을 시켜준다는 것인데, 이제는 포괄적으로 여지가 있다. 미국에서 구글 북스가 107조로 면책을 받았다. 구글아트로 마찬가지로였다. 2013년에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규정이 들어왔다. 공공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건 누구나 써도 된다는 규정이다. 민간에서 영리 목적으로 써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하면 세금 가지고 지원을 받고 만들었으니 당연히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미국은 연방 저작권을 처음부터 해제하고 2013년 입법을 해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대부분 반복적으로 링크를 걸어 놓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 이는 판례 이후에 나온 현상이다. 또한 '법적 허락'이라는 규정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등록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어 만든 제도가 법적 허락이라는 제도다. 저작권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을 보이면 면책시켜 준다는 내용이다. 요점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미국 판례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법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아카이빙이나 플랫폼 관련해서 이 부분과 많이 활용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국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 항목이 정말 중요하다. 문화예술 플랫폼도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되고 활성화된다면 좋겠다. 이준우 부장에서 문화예술 플랫폼에 대한 운영 방향을 전달해달라.

이준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화 전달기관이다. 정보원이 15년째 공공사업을 해왔다. 학술적 의미나 사전적 의미 플랫폼은 여러 가지 있으나 실제 사업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플랫폼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 플랫폼이 어떤 형식을 띠든 어떤 내용을 서비스하던 중요하지 않다. 플랫폼은 반드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그걸 플랫폼이라고 한다. 서비스와 이용자가 많아지면 플랫폼이 된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의도적으로 플랫폼 구축 시도를 많이 했으나 대부분 소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아직도 공공은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 제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 공연 전시 축제 관련 단체들이 민간이나 공공에 많다. 전시 공연 등은 오프라인과 연계되지 않으면 온라인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온라인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평구만의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 개와 연계하고 중앙부처와 연계한다면 모두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선행사례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과 협력하여 문화와 관련된 추진 방법과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백승국 공공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부평은 콘텐츠에 대한 특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지만 좀더 넓은 범위와 시각으로 도전해야 한다. 문화부나 공공에서 하는 플랫폼은 공공 차원에서 지원과 인프라가 가능하겠지만 지역은 어렵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와 관련해 음악 분야에 대한 유세음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유세음 유통이나 매개적 구조 안에는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한 경우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아트마켓으로서 홍보와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기대한다. 서클아트마켓이나 더아프로 실행처럼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유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티스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파급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이를 변별력 있게 구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유통 안에서 성공적 콘텐츠로 발돋움하도록 아티스트를 인큐베이팅 하는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 유통과 산업 안에서 전문적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시브해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기초문화재단 역할 안에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예술이 부평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 아니므로 확장해야 한다. 앞으로 아티스트의 고민을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 등 산업적인 것 외에 감성적인 것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백승국 중앙정부의 플랫폼은 있으나 지역이 참여하기는 무리가 있고 이에 차별화된 지역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달라.

고정민 어떤 사이트를 원하는 지에 대한 소비자 수요 조사와 예술가들을 파악해서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예술가의 상거래를 유통시키려고 플랜을 계획하지만 성과가 별로 없다.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다르고, 여기에 상거래까지 더하면 복잡해진다. 공공 영역의 플랫폼이라면 이익보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에 포커싱되어야 한다.

김은희 각각 매체나 플랫폼이 만들어질 때 분명한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만들어진 후 중복이 있게 마련이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온라인 구축을 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만들어진 플랫폼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현장과 예술가, 단체, 기획자, 지역민, 다른 매체 등과 면밀하게 선검토되어야 한다.

김인호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향유권 증진이다. 우리는 매칭서비스를 하고 있기에 공공 분야와 중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모델을 공공에서 하면 개인의 사업목적이 희석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DB 등을 공유하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다.

백승국 인천 인구는 300만이 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콘텐츠는 전무하다. 부산이나 대구에 비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금도 부족하다. 그런데 부평구문화재단이 유통이나 비즈니스 기능의 문화예술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니 다양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다. 몇 가지 오늘 키워드가 정리된다. 플랫폼의 아카이빙 얘기도 나왔고, DB구축에 대한 장르, 어느 장르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 수요자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PR 전략과 웹진 등에 대한 문제점,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해 부평구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로 압축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공공 플랫폼의 실패 과정을 담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준우 부평구문화재단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중앙부처에서 앞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선에서 공부하고 논의하면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사이즈는 작아도 특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독자적 운영될 수는 없다. 인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평의 문화와 예술을 보여주어야 하기에 국내외의 다양한 플랫폼을 연계해야 한다.

백승국 DB구축이 문제인 것 같다. 아티스트 네트워크, 예술가들의 작품을 구축하고 그중에서 선별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얼마나 절렬까.

김은희 비추어워맥스를 보면, 사이트 관리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리하도록 독려한다. 부평구에서 만드는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 플랫폼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이다. 예술가들을 위한 플랫폼인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플랫폼인지 궁금하다. 웨일즈의 나이스아웃 프로그램은 아티스트들의 새로운 시장발굴이 있지만 지역민을 위한 아웃리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공연료 때문에 정식 공연장이 아니라 회관, 강당 등의 유한한 성질의 공연으로 실행된다. 부평에서도 아웃리치 성격, 커뮤니티 성격의 플랫폼이나 예술가를 위한 플랫폼이 가능할 것 같다.

고정민 의욕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침범하는 등 너무 일을 크게 벌이지 않았으면 한다. 지역 특화를 위해 공급자와 소비자 두 부분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인천의 비슷한 부문과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백승국 인천과 협력은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시작한 다음이어야 할 것 같다. 기업은 제품이 있어서 포지션의 전략이 정확하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그렇지 않다. 아티스트의 감성까지 세부적으로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정교해야 한다. 다양한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은 그동안 산업화, 제조업 기반의 도시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프라이드를 갖게 되면 좋겠다. 문화예술 플랫폼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용기 있고 힘차게 시작하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생활문화를 디자인하는 부평생활문화센터

문화와 삶이 함께 숨쉬는 세계로 초대합니다

글 최성지(부평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담당)

최근의 문화정책은 시설 인프라 조성 중심에서 문화예술 참여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생활문화는 일상의 주체들이 스스로 어떠한 형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가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2조 2항)

'생활문화센터'는 단순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설이 아닌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동호회 양성 프로그램 및 교류 프로그램 지원, 동호회-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공간이 된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자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부평지역의 생활문화 네트워킹을 선도하여 주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참여를 독려해주고, 환경을 조성하여, 이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조직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향후 많은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부평아트센터 앞 부평아트하우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카페와 모임방을 만들고, 아마추어 동호회들의 발표 공간인 다목적홀을 전시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미고, 지하 연습실을 합리적인 공간의 연습실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새롭게 생긴 공간과 현재 있는 공간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보완하고 있다. 주민들은 새롭고 쾌적한 생활문화센터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연습도 하고, 회의·발표도 하는 공간으로까지 활발하게 사용할 것이다. 운영 부분에서 생활문화센터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꾸려 운영규정을 만들고 이용시간도 정하는 자율적 형태의 운영공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생활문화센터는 동호회와 주민들, 동호회와 동호회끼리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해 공간을 이용하는 동호회 회원들이나 주민들이 서로서로 누가 와서 뭘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나셔서 이어주게 될 것이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사통팔달 역할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실현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기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바로 주민인 '나'와 '우리'가 함께 만들고 나누는 문화적 삶의 현장이자 행복창작소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웃과 이웃이 만나 함께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공간 변화와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꾀하다!

1층은 생활문화센터의 얼굴이자 주민들 간의 마주침이 있는 공간이다. 현재 아카이브실로 운영되던 공간을 다목적홀(전시실)과 모임방 1, 2, 3, 4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휴식 겸 독서 공간, 공동체 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 타문화센터들의 모습. 위부터 서산생활문화센터, 수원문화원 수원생활문화센터, 농성문화의집 농성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의 속성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입니다.

강의실은 프로그램실로 그림, 공예, 독서, 회의 등의 모든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이며, 1층 통창이 있는 공간은 커뮤니티 카페로 조성된다. 지하 1층은 사물함, 신발장, 전면 거울, 무용 바, 방음장치 등 동적인 연습에 필요한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현재 연습실 1, 2로 운영되던 공간을 연습실 1, 2, 3, 4와 영상편집실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소규모 단위의 동호회부터 대규모 단위의 동호회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게 효율적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부평생활문화센터는 열린 공간이다. 누군가는 다목적홀에서 세미나를 하고, 전시실과 복도 갤러리에서 눈요기를 하고, 1층 커뮤니티 카페에 들러 잠시 쉬면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지하 1층 연습실 공간에서 기타 연습을 하는 상상도 자연스럽다. 누구나 안락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마음껏 놀다 갈 수도 있다. 멋진 야외테라스가 있는 커뮤니티카페에서 분위기 있는 음악과 따뜻한 차 한 잔 맛볼 기회를 만나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이 공간에 오면 사람들의 걸음이 느려져 편안함을 느끼고, 부평만의 스타일 넘치는 일상을 드라마로 만들어보시기를 바란다.

2017년 봄, 부평생활문화센터에서 벌어지게 될 멋진 일상을 기대한다.

부평문화센터 지도

1F 활동 공간



전시, 발표회, 강의, 회의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커뮤니티 활동의 장

- ① 다목적실(전시실)
192㎡ | 58평
전시, 행사, 강연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
- ② 모임방 1, 2, 3, 4
각 20㎡ | 각 6평
동호회 회의 및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공간
- ③ 커뮤니티 카페
60㎡ | 18평
열린공간으로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마추칠 공간
- ④ 프로그램실 1
60㎡ | 18평
세미나, 토론, 교육, 동호회
활동이 가능한 공간
- ⑤ 프로그램실 2
40㎡ | 12평
강연 및 창의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한 공간

2F 연습 공간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동호회, 학생, 지역 주민에게 연습공간 및 소동의 장

- ① 오픈스페이스
181.28㎡ | 54.8평
공연, 풍물 및 무용 연습이
가능한 공간
- ② 연습실1
144㎡ | 43.5평
무용, 합창, 연극 연습이
가능한 공간
- ③ 연습실2
80㎡ | 24.2평
무용, 합창, 연극 연습이
가능한 공간
- ④ 연습실3
40㎡ | 12평
소규모 동호회·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 ⑤ 연습실4
40㎡ | 12평
소규모 동호회·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 ⑥ 영상편집실
18㎡ | 5.4평
홍보용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



부평 생활문화센터

부평에 지역 공동체를 위한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부평아트센터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탈바꿈해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든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누구나 생활문화예술에 참여하여 부평만의 문화를 만들고 즐기며
일상생활의 행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월~토 09:30~22:30
(일요일, 공휴일 휴관)

대관시간

오전 10:00~13:00 (클리닝타임 30분)
오후 14:00~17:00 (클리닝타임 30분)
저녁 18:00~22:00

대관신청

정기대관
정기대관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접수기간 : 분기별 홈페이지 공고 참고

수시대관

접수기간 : 해당 정기대관 기간에 한하여
신청 및 이용 가능

대관내용

무료
1F 다목적홀(전시실), 모임방 #1,2,3,4
B1F 영상편집실

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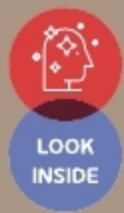
1F 프로그램실 1, 2, 오픈스페이스
B1F 연습실 1, 2, 3, 4
· 대관료: 1타임(3시간) 10,000원
오픈스페이스 20,000원
· 1일 최대 2타임(6시간).
· 월 10일 이하 사용가능 월 최대 60시간

대관절차

예약신청 → 담당자 예약승인 →
입실확인 → 공간이용 → 퇴실점검
· 예약원료는 로그인 후
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bpcf.or.kr

문의

032-500-2071~3



文化藝術



문화예술과 청탁금지법

請託

禁止法

1 박지영(변호사)

청탁금지법의 시행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 정식 법률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을 없애고 공적 업무의 불가매수성,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낯설어 보이는 법 제도 앞에 겁을 먹기보다는 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고민하고 귀기울여 보면 법제도의 이해와 실천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청탁금지법은 그 적용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공직자 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가 지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예술계 종사자, 예술가의 경우도 교원이라면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자이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예술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 적용대상자가 된다. 단, 대학교수 중 명예교수 및 겸임교원, 외래교수 등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골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금지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 이하, 매 회계연도 합산액 300만 원 이하인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액수의 2~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사유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포함 8가지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예술가가 자신의 공연 티켓을 가족, 친지, 스승, 지인들에게 제공할 경우, 받는 사람 중 공직자가 있다면 일단 스승, 지인들의 경우에는 초대권 가액이 5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을 초과하여도 괜찮지만 직무관련성이 범위가 넓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 친지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예외

조항이 있다. 친족(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가까운 친지 사이에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경조사비, 선물 수수 등까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예외사유도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청탁금지법 제정 전후를 불문하고 친족인 공무원에게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뇌물 죄 적용을 받는다.

낯설어 보이는 법 제도를 마주할 때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법이 시행됨으로써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예술가가

공연 또는 연주를 하고 받는 연주 개런티

예를 들어 대학 전임교원이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거나 공연에서 연주를 하고 연주 개런티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것은 순수하게 자신의 예술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어서, 계약자유의 원칙 및 예술가 자신의 능력과 실력에 기한 통상적인 경제활동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3호의 예외사유인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가에 대한 순수 후원행위

독지가, 기업 등이 유망한 예술가에게 고가의 악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연주 등 공연을 스폰서링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예술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장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후원받는 예술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라면 순수한 후원 행위라 할지라도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만이 면책된다는 것인데, 예외 사유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해석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고 부정청탁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순수한 예술후원 행위에 관하여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법 해석이 있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예 술

산 업 과

마 케 팅

글 고정민(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과거에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이 예술의 중심이었다. 지금은 산업적 관점에서 보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미국이 예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예술의 주도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뀐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역동적인 시장 창출의 실패, 글로벌 대응의 미흡, 사상과 사조 융합의 무관심 등 이른바 산업화, 시장경제화되는 예술산업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예술의 대중화를 선도하면서 추상표현주의라는 새로운 대중적 사조를 만들어냈고, 유통의 활성화, 거대 자본의 투입 등의 산업화를 통해 예술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자유 경쟁 시장 구조를 다지면서 세계 예술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순수예술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산업 논리로 접근한다면 국가적으로 예술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예술가들도 적절한 수입으로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상생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술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공공원리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원정책이 점점 더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라마다 예술산업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위상은 다르다. 미국은 성숙기에 있고 중국은 성장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적 차원의 예술이 산업적 차원의 예술로 변화하는

변곡점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 예술산업의 역량이 부족하고, 따라서 예술산업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의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사업여건의 미비로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우므로 일정정도의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장 환경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열악한 예술기관이나 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예술의 산업적 특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예술과 같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과거 소수에 한정되었던 예술 소비자가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어 예술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또한 예술이 일반제품과의 융합으로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예술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예술의 쓰임새가 일반제품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술, 공연 등의 유통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점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 모바일 등의 유통채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화에 따른 극장이나 전시 등의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4차 혁명에 의한 시의 발전으로 미술과 공연의 콘텐츠들이

순수예술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산업 논리로 접근한다면 국가적으로 예술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예술가들도 적절한 수입으로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상생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새로운 형태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가격, 대량으로 예술이 보급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예술은 산업화가 더욱 진전되고 시장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예술의 산업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마케팅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 세분화하여,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포지셔닝을 한 이후 가격, 제품, 유통, 홍보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영역에서 그대로 이러한 마케팅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개념을 판매 확대에서 고객의 가치 제고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이는 정부기관에도 적용가능하다. 즉, 적정한 가격에 수요자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수요자의 관점을 견지하고,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마케팅이 지향하는 기본 목적에 충실한다면 마케팅 개념은 공공적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같은 조건이라면 좀 더 많은 판매를 통해 소비자를 확대하고 문화를 통해서 이들에게 만족을 주고 가치를 제공한다면 시장도 확대되고 소비자들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예술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역의 문화재단이 신설되고 규모를 확대하는가 하면 새로운 영역도 개척하고 있다. 예술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에서도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하여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야 한다. 문화재단은 주로 공연장을 운영하며 공연, 전시 등의 예술 활동, 문화교육, 문화복지, 생활문화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마케팅 활동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다. 즉, 시장환경 분석을 통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설정 및 포지셔닝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세분화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재단에서 수행하는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격, 제품, 유통, 홍보 등의 전략을 추진하여 각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사업의 형태나 재단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마케팅 전략은 기획이나 대관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획의 경우에도 직접 기획하는 경우와 외부의 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 작품 기획은 외부에서 담당하고 재단에서는 유통과 홍보만 하는 형태, 재단에 전문가가 있어 재단에서 기획까지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 여기에 홍보까지도 외부에 맡겨서 진행하는 형태 등도 존재할 것이다.

또한 재단에서 해야 할 마케팅 활동 중의 하나는



루이뷔통과 쿠사마 아요이의 콜라보레이션

해외와의 사업 전개이다. 물론 해외교류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담당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가 해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문화 단체와의 교류, 재단에서 추진한 공연 및 전시의 해외진출, 해외 인력교류, 해외 공동제작 등도 마케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이다.

최근 예술의 산업화와 관련해서 콜라보레이션 등 예술가들이 산업과 연계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아트 콜라보레이션은 루이뷔통, 애플루트 보드카, BMW 등 외국 업체만이 아니라 현대카드 등의 한국기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재단에서는 지역의 예술가와 산업계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제품에도 고품격을 제공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재단 마케팅팀은 재단 전체적으로 전략 콘트를 타워가 될 수 있다. 재단 전체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마케팅 관점에서 미래 방향설정과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는 전략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마케팅이란 조직이나 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틀로서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는 재단 전체의 미래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BMW 그룹과 세계적인 아티스트 제프 쿤스(Jeff Koons)가 디자인한 BMW 이트카 'BMW M3 GT2'



독특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애플루트는 최근 암스테르담 인스 이벤트와 콜라보레이션해 애플루트 Facet을 만들었다.



인사이드 부평

그곳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흥을 깨우는 공연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
그리고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세밀한 교육들.

예술과 문화, 생활의 만남을 주선하는
부평아트센터의 변신은 끝이 없다.

Viewfinder

부평문화사랑방의 하반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인 '영화, 예술을 만나다'

Zoom In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3r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News

부평나눔카드 제휴 협약식 개최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드림 시민회원 가맹점 '문화나비'1호점 현판식 개최
'2016 후원의 밤' 개최
'2016 예술경영 컨퍼런스', 부평구문화재단 우수사례 선정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사업명 슬로건 공모전



VIEW
FINDER

영화, 예술을 만나다 | 내 마음속 예술을 찾아서

주로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공부(工夫)'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공(工)'은 '장인, 기교, 솜씨, 일, 기능 등'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와는 살짝 거리가 있다. 최근 성인층을 중심으로 다시 공부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다. 단순한 정보와 지식 습득의 공부가 아닌 예술, 문화, 역사, 과학 등의 심층적인 분야에 대해 단순 지식을 넘어 연구와 분석, 탐사까지 이어지는 공부 말이다. 부평구에서도 지난 가을부터 영화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공부의 장이 펼쳐졌다. 흥미롭지도, 대중적이지도 않은 영화임에도 참가자들은 배움의 열정을 꽃피웠다.

부평문화사랑방에 모인 사람들, 영화로 문화 예술의 깊이를 더하다

2016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사랑방의 하반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인 '영화, 예술을 만나다'는 예술적 감성을 만나는 일상 속 심표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3인의 전문가가 안내하는 영화 속 예술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기억된다. 이번 '영화, 예술을 만나다'는 미술, 음악(재즈), 사진 등 예술을 소재로 한 영화 관람 후 해당 예술 분야 전문가가 강연하고 이후 참가자들과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프로그램은 10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부평문화사랑방(갈산2동 주민센터 3층)에서 진행되었다. 10월 8일과 15일에는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및 덕수궁 미술관장을 역임한 정준모 미술정책가가 미술품 감정과 경매, 문화재 약탈과 환수에 대해 강의했으며, 10월 22일과 29일에는 문화평론가인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정윤수 교수가 재즈 음악의 예술적 가치와 절대적 고독의 세계에 대해 신선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11월 5일과 12일에는 미디어와 사진, 드로잉 등 꾸준한 작업을 하며 문화기획자로 활동 중인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센터 슈퍼바이저 김탕이 사진의 가치와 사진 속 메시지를 해석하는 시선에 대해 강의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살짝 어려울 것이라 염려했던 것은 기우로 밝혀졌다. 회가 지날수록 마니아층은 늘어났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신의 숨겨진 예술성을 끄집어내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마지막 강의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를 관람하던 참가자들의 얼굴을 보며 공부의 즐거움을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더 깊이 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고 또 한목소리로 이런 기회가 자주 기획되어 참가자들에게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사랑방 한송희 씨는 "친근한 매체인 영화를 통해 예술 장르와 작품에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감상에 능동적인 향유자층으로 자리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술의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 이해하고 해소한다면 예술이 특권층의 소유물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향후 부평문화사랑방은 일반 성인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비비안 마이어의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과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
“김탕, 질문에 질문을 던지다”

학생: 사진의 제목이나 캡션이 중요한가요?

김탕: 사진가는 사진에 적합한 언어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무엇인가요?

김탕: 카메라에 피사체를 이입하는 것입니다.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면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권위가 눈과 귀를 가린다.

그렇다면 논리를 믿을 것인가? ‘플랫 어스 소사이어티’라는
집단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의 100%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렇다면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을 것인가? 내가 가진 주장은 많은 주위 요소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어떤 사실을 맞는지, 틀린 지 구분하면서
예술성을 잃게 된다. 사진에 무엇이 찍혔는가, 표현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 관객은 어떤
이슈를 다루는가 등이 휘발되면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고 거리에서 찍힌
사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안에는 사진계, 예술계, 정치계의
해결하기 어려운 관계가 들어있다. 문화적 수용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측면들이다. 영화를 보면서 얼마만큼의 문화적
수용이 가능한지, 인간의 권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길 바란다.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은 ‘끊임없이 초상권을 침해하는가?’,
‘초상권과 표현 자유의 줄타기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관해 묻는다. 답은 없다. 각자의 관점인 것이다. 사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것을 ‘예술성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예술 세계와 만날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술은 마케팅이기도 하다. ‘예술은
마케팅의 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한 작가로 뱅크시(Banksy)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대중과 예술이 어떤 접점에서
만나는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논쟁은 계속 남아있다. 결론이
나면 예술이 더는 재미가 없어진다. 복잡한 문제들이 예술계에
남아 있으면 한다. 남겨진 논쟁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예술가의 작품을 많이 아는 것보다
강좌를 통해 이슈를 다루고 논쟁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다.”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존 예술을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밌다, 잘 팔린다, 평이 좋지 않다 등 가치 판단으로만 바라봤던
습관을 반성했다. 비록 익숙한 사고 방식을 뒤트는 강의였지만
이상하게 유쾌한 감각이 살아나는 듯하다고도 말했다. 사실
우리는 늘 대립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조금은 역설적인
강의에 모두 살짝 흥분하는 것 같았다.



INTERVIEW

김탕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관객들과 어떻게 소통하려고 하는가?

‘예술을 바라보는 경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가 지난 강좌의 주된 관심사였다.
지금은 만들어진 작품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또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무관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그
안에서 예술은 어느 쪽에 종사하는가를 이야기한다.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진이 아닌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을 어떤 예술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과 영화라는 측면보다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술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비비안 마이어의 이미지 메시지를 어떻게
썼는가? 또 작가 의도에 맞는 사진이 프린트로 담겨야
작품이라고 보는데, 이 영화는 비비안 마이어가 생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들을 사후 경매를 통해 하나씩
찾아가면서 프린팅된다. 이 경우 ‘이미지 텍스트 자체를
예술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생긴다. ‘의견이
분분한데 관객은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될까?’가 이번
강의 주제이다.

마을 단위의 규모로 진행된 강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은 기회이자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한다.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다르다.
강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강사의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압축해서 전달한다. 이러한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속적으로 고민한다면 문화적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처럼 작은 단위의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김혜정

평소 영화 팸플릿을 모아 꼼꼼하게 살피는
편이다. 영화 자체도 좋아하지만 사진에 더
관심이 많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이 4번째이며, 매주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물론 저의 생각과
관점을 넓혀줄 강의이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신동명

지인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영화를 좋아하는
1인으로 영화와 접목한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운 동네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뿌듯하다.



<영화, 예술을 만나다> 상영 영화



1회

베스트 오브 미

영화 131분 2013년 1 이탈리아 15세 ↑
최고의 예술품 경매사이자 감정가인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면서 그림과

재산을 잃게 되는 내용으로 ‘사랑은 감정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 미술품의 감정적인 측면과
결부시켜 미술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2회

우먼 인 골드

영화 109분 2015년 1 미국 중국 12세 ↑
나치의 문화재 약탈과 환수
과정을 지켜보며, 문화 그리고

전쟁·정치·예술과의 관계, 박해에 대한 보상, 정의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전쟁과 예술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생각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3회

마일스

영화 100분 2016년 1 미국 청소년관람불가
폭넓은 표현력으로 음악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마일스

데이비스’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중의 시선에서
5년간 사라진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숨겨진 미발표
앨범을 찾으며 겪게 되는 감동스토리.



4회

본투비틀루

드라마 97분 2016년 1 미국, 캐나다,
영국 1 청소년관람불가
재즈 음악사를 대표하는 트럼펫

연주자인 쳇 베이커(1929~1988)의 생애 중
가장 뜨거웠고 치열했던 시기였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실제 이야기에 픽션을 더한 작품.



5회

꿈꾸는 카메라:사창가에서 태어나

영화 85분 2004년 1 미국 인도 12세 ↑
인도의 사창가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주고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준 사진작가 브리스키는 아이들의
잠재되어 있던 천재적인 예술성을 끄집어낸다.
영화는 예술이 지닌 큰 힘을 보여준다.



6회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영화 84분 2013년 1 미국 1 세
아마추어 사진가가 남긴 가방 속
오래된 필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필름과 작업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영화와
사진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사진의 가치, 예술
행위의 원천 등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깊어가는 가을밤,
부평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노래하다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

취재 편집부
사진 전석성



가리를 오가는 사람들... 어디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꽃노래 불러보네...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세상은 어둠 속에 잠이 들고...
밤이 깊어지는 에스캅 시티...굿나잇 꿈의 도시...
에스캅 슈퍼밴드의 <에스캅 시티>

어느 가을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노랫말처럼
'에스캅 시티(부평공원)'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대감
가득한 얼굴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은 연인부터
머리 희끗희끗한 노부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온
부부, 생기발랄하고 호기심 충만한 청소년들, 호탕한
웃음소리가 넘치는 오랜 친구들 그룹과 테이블에
와인잔을 행거와 피크닉을 즐기는 로맨틱한 그룹까지,
모두가 에스캅 시티로 모여들었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대중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부평만의 음악 스토리,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부평밴드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은





부평밴드페스티벌에서 쑥스러움이나 격세지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열광하고 호응하고 환호하는 관객들뿐이었다.
과거와 현재, 음악과 젊음의 열기가 공존하는 열정의 현장이었다.

일견 밴드의 출연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데이브레이크, 더 모노톤즈, 락스, 말로 밴드 등
밴드 음악의 대표주자들인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까지 이 공연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다. 공연이 시작되고 심장이 쏠깃,
머리카락이 쭈뼛할 때쯤 애스컴 시티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공연을 준비하는 중에도,
단순한 음향 조절과 잠깐의 연주 소리만으로도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이내
꿈틀거리던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환호성이나
반응의 모양새는 달랐지만 지나간, 다가올, 지금의
젊음에 대한 열망은 동일했다. 이곳에서 부끄러움이나
격세지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부평의 힘이 아닐까. 부평은 밴드페스티벌로 인해
과거와 현재, 음악과 젊음의 열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부평음악도시를 기대하며

올해 부평구문화재단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10월 14일~15일 부평공원 내 광장에서 진행된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은 첫째 날 '재즈와 스윙',
둘째 날 '젊은 밴드' 음악으로 풍성하게 열렸다.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장르 구성으로 음악의 집중도를
높이고,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며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Remember'라는 부제로

1950~60년대 애스컴 부대 주변의 라이브 클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대중음악 60년의 뿌리가 된 부평의
독특한 음악 역사를 기억하고자 했으며, 과거의 음악과
현재의 음악을 간직하고 미래의 음악도 기대하자는
취지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부평 밴드페스티벌이
열린 부평공원 인근에는 6·25 이후 미군 부대 '캠프
마켓'이 들어서면서 애스컴(ASCOM)이라 불리는
미군수지령사령부 주변에 미군 대상 음악 클럽이
많았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과 연결되어서일까. 부평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애스컴 슈퍼밴드'를 비롯한 참가
밴드들은 평소보다 더 열정적인 연주를 펼쳤다.

애스컴의 정서와 뿌리를 살린 공연 축제

14일 공연은 1950~60년대 시절 애스컴 부대에서
성행했던 재즈와 스윙(Jazz&Swing)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평지역의 연주자이자 실력 있는 노장들의
밴드인 '부평 올스타빅밴드'와 탁월한 보컬과 연주
실력으로 한국밴드뮤직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사랑과
평화'의 공연이 이어졌다. 이후 재즈 색소폰 연주자이자
한국 대중음악계의 '거목(巨木)' 정성조의 음악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정성조 재즈 오케스트라'와 스캇의 여왕,
가장 한국적인 재즈 보컬 '말로 밴드'의 무대가 이어져



풍성한 가을밤의 분위기를 한껏 더 고조시켰다.
15일 공연은 2015년 부평밴드페스티벌에서 구성되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애스컴 슈퍼밴드'와 우리나라
인디신 로커빌리 장르의 대표 밴드 '스트릿건즈',
일렉트로닉 개러지 락으로 폭발하는 댄스 유발자
'락스'와 경쾌한 긍정, 따스한 낭만 에너지로 우리를
'들었다 났다'하는 매력적인 네 남자 '데이브레이크',
조선 펑크의 반항심에 완속함을 엮은 '더 모노톤즈'의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MusicTown-음악동네만들기 이모저모

한편, 10월 8일에는 페스티벌의 기대감을 위해 부평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감상·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인천시·부평구의 실력
있는 신진 음악인 발굴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MusicTown-음악동네만들기>는 "부평에
음악동네가 생긴다면?"의 질문으로 시작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나만 알고 싶은 공간, 매일 듣고 싶은
음악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부평 지역 내 4곳에서
미니스테이지와 1곳에서 토크콘서트·미니스테이지가
펼쳐졌는데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부평구 지역 내
음악페스티벌의 스펙트럼을 확장하여 음악도시
부평으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총 5군데의 장소에서 진행된 <MusicTown-
음악동네만들기>는 부평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에서
오후 4시부터 이견승Quartet, 정소휘433의
재즈무대가, 인천지하철 지하상가 더물에서는
오후 4시부터 케이즈비, 나발총의 브라스 버스킹팀의
무대가 펼쳐졌다.
한편 부평지하상가 썬크빅문고에서는 오후
5시부터 '한국대중음악 최초의 기록들'이라는
주제로 <대중가요 LP 가이드북>의 저자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의 토크콘서트가 펼쳐졌다.

부평밴드페스티벌은 대중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독특한 지역만의 스토리를

INTERVIEW



김현주, 박명숙

항상 부평공원에 운동하러
오는데 '밴드페스티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보고
왔어요. 평소 인디밴드를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의
음악만으로도 에너지가
넘치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박현진, 김승우, 김태중

공원이 집 근처라 주말에는
이곳에 자주 나옵니다.
흥겨운 음악소리가 가슴을
뛰게 하네요. 또 부평이 문화
도시로 자리하는 데 의미있는
공연이라고 하니 마음껏
즐거야겠습니다.

누리고, 또 모든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즐거운 음악
축제를 지향한다. 또한 부평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진한 대중음악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음악창작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로 이어져 음악 도시로 가는
다리가 되고 있다.
부평은 음악 도시로서 이미 탄탄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곡차곡 써내려가야 할
스토리도 많다. 머지않아 부평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메카로서 볼거리, 놀거리, 들을거리가 가득한 명소로
자리하는 날만 남았다.





“Sing Sing Sing,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노래해요”

부평의 지역적 특성과 예술성을 그대로 담은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년 전 부평문화재단이 부평의 이야기를 담아 만든 창작극인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2016년 시나리오와 음악, 배우를 보강해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첫공연을 올려 서울 진출이라는 쾌거와 함께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찬사까지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된 곡의 제목으로 부평과 음악, 미래, 희망을 조명해본다.

취재 편집부
사진 전석영



The end of the world — Skeeter Davis

스키테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는 오랫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달렸던 노래이자 우리에게 익숙한 명곡으로 기억된다. ‘이별을 맞이해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시적 가사와 아름다운 선율의 곡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시절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표현하여 부평의 모습을 그려낸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과 닮아 있다.

부평문화재단 박옥진 대표는 이번 공연에 대해 “인천을 벗어난 첫 공연으로 부평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창작 음악극이 중앙 무대에 진출하고, 전국의 관객에게 부평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어 의미가 큼니다.”라며 큰 자부심을 드러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전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인공 용성과 동료들이 부평 애스캅 미군 부대 오디션에



극작, 연출, 스텝, 배우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공연으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진한 감동이 느껴지는 음악과 가슴 떨리는 캐릭터는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공연이다.

도전하며 음악에 대한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이야기다. 공연의 주된 배경 음악으로 나오는 올드 팝과 <체리 핑크 맘보> 등 1950~60년대 가요는 한국 대중음악의 60년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In the mood — Glenn Miller Orchestra

<In the mood>는 빅밴드의 고전이자 대표 스윙 음악으로 1930년대 공황의 암울에서 벗어나 풍족한 사회로 나가는 미국인의 희망을 담아, 역동적인 관악 선율에 맞춰 힘차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1950년대 우리나라도 <In the mood>의 배경과 비슷한 시대를 보냈고, 전쟁이 끝난 후 피폐했던 삶과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부평에는 그때부터 흘러온 음악과 연주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이러한 이야기를 담아 당시 삶의 애환과 사랑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표현했고, 1950~60년대 부평 미군기지 주변에 성행했던 음악 클럽이 현재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국 대중음악 발전의 시초가 됐다는 사실에 기반해 제작되었다. 당시 부평에서는 미 해병대 주둔지에서 주한미군 보급 물자를 담당하던 주한미군 군수지원사령부(ASCOM)가 있었고 애스컴의 오디션은 한국의 오디션 중에 가장 엄격하다고 정평이 나 있었고 그것을 통과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당시 부평3동에는 내로라하는 음악인이 집결해 있었는데, 40년대 트로트 일색의 음악 환경이 컨트리뮤직,

스탠다드팝, 스윙 등 다양한 음악으로 확장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애스컴에서는 국내 록 음악의 대부 신중현, 조용필이 이끈 '위대한 탄생'의 키보디스트 김청산, '키보이스'의 리더 김홍탁, '김희갑 악단'의 드러머 김성한 등의 연주자와 한명숙, 최희준, 위일청, 현미, 이철호 등의 가수들이 활동했다. 그 시절 그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부평'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거점이 되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Changing partner — Patti Page

"오, 사랑스러운 그대여, 다시는 파트너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라는 가사의 곡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서 용생과 연희가 이별하는 장면에서 사랑을 확인하며 부르는 곡이다. 부평과 음악은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 공연은 부평이 지닌 대중음악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남녀 주인공 용생과 연희라는 '러브 라인'을 만들어냈다. 또한 극 중 색소폰, 트럼펫, 드럼, 베이스, 피아노, 기타로 구성된 '더스트 문 밴드'는 라이브 연주로 연가해 음악의 생생함을 더했다. 주인공 용생은 '음악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며 무엇이든 집중해 열심히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청년으로, 용생 역을 맡은 박화홍 씨는 부평에서 유년시절을 보냈고 대학시절 밴드 경험을 살려 음악에 대한 열정과 절절한 사랑을 노래와 연기로 완벽하게 표현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공연, 캐릭터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운 공연, 아스라한 과거 향수가 느껴지는 공연, 무엇보다 배우들의 호연이 가장 빛나는 공연이었다.

Da doo ron ron — The Crystals

<Da doo ron ron>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영어로 표현한 의태어다. 크리스탈스의 <Da doo ron ron>은 한눈에 반한 사람을 보며 심장이 'Da doo ron ron' 하다는 노래로 자유롭고 경쾌한 곡이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에서도 공연 내내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었는데, 당시 음악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치열했던 삶을 공연을 통해 느꼈기 때문이었으리라. 이 작품은 2년의 공연 기간을 거치면서 꾸준한 각색과 연출로 극의 집중도를 높였으며, 50~60년대 초반 골든 팝송을 전면 배치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Love me tender>,



<Changing partner> 등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30여 곡의 다양한 음악들이 편곡되어 불려졌다. 용생이 음악을 통해 꿈을 성취하는 흥미로운 스토리와 함께 <Don't be cruel(엘비스 프레슬리)>, <Too young(넛 킹 콜)>, <Let's twist again(처비 체커)>, <우리 애인은 올드 미스(최희준)>, <노란 샤쓰의 사나이(한명숙)> 등 시공간을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부평은 미군부대에서의 한국 음악인들의 활약으로 트로트 일색이던 국내 대중음악계에 팝과 로큰롤이 소개되는 무대가 되었는데, 부평은 "음악 도시 부평(MusiCity 부평)"이란 별칭을 내세워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로 레퍼토리를 키워 나가고 있다.

Sing sing sing — Benny Goodman

"Everybody start to sing"의 가사를 포함하고 있는 베니 굿맨의 <Sing sing sing>은 앞으로 부평이 부를 노래와 사뭇 닮아 있다. 한국 대중음악 60년을 담은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은 장년층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젊은이들에게는 불후의 명곡을 들려주는 작품이 되었다. 이처럼 모든 세대를 품는 성공적인 도전을 기획 삼아 부평은 이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교훈을 적용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음악문화융합도시로 자리해야 한다. 행정팀, 지역 주민, 지역 단체, 예술가 단체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의견을 내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철강 산업으로 쇠락한 도시가 음악과 예술로 부흥해 현재는 음악 도시로 주요한 문화관광 도시가 된 영국의 리버풀처럼 부평도 공업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음악과 문화 중심의 도시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부평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고의 뮤지컬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머지않아 세계인이 환호하는 작품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INTERVIEW



현미 님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의 자리에 초대받아 기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공연에 초대받은 후 애스컴에서 노래했던 레퍼토리 추억이 떠올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애스컴에서 활동할 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 1, 2위를 다투는 곡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따라 불렀던 노래가 원동력이 되어 지금의 가수 현미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관람객임에도 마치 제가 공연하는 것처럼 기대되고 설렙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통해 60년대 그 시절 대중음악의 열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창희 님

일 년에 2번 초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하는데, 그 중 한번은 문화생활을 즐깁니다. 이번에는 국립극장에서 하는 공연을 관심 있게 보다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공연을 선택했습니다. 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임 날짜를 조정하는 수고로움도 마다치 않았습니다. 동창들에게 공연의 줄거리와 배경을 설명해주고 함께 즐겁게 관람하려고 합니다.



慈善

경매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
부평구문화재단
최도현 후원회장(가운데)



祝祭

눈꽃처럼
빛나는

예술, 자선, 축제

3r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藝術



스페셜 세일 코너에는
27점이 출품되었는데,
모두 20만 원 미만의 그림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경매를 즐길 수 있었다.

특권층이 누리는 한정적인 행사로 인식되던 '미술작품 경매'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지금, 부평구문화재단에서 기획한 '부평옥션'이 경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얼어붙을수록 시민들은 마음이 황폐해지고 예술가는 주머니가 가벼워지게 마련인데, '부평옥션'은 컬렉터의 범위를 좀 더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확장했다. 신진 작가들에게는 홍보와 판매의 길을 여는 기회를, 기성 작가에게는 사회공헌의 기회를 그리고 관람객에게는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작품을 소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경매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한마음으로 이뤄낸
모두가 행복한 시간

지난 11월 22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에서 미술품 자선 경매인 '3r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이 진행되었다. 부평구문화재단이 주관해 올해 3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작가, 낙찰가, 기관이 한마음으로 자선의 뜻을 모은 미술 유통으로, 예술을 통한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이뤄낸 뜻깊은 자리였다.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1부 컨템포러리 세일(동시대 미술 경매)과 2부 프리미엄 세일(큰 그림 경매), 3부 스페셜 세일(작은 그림 경매)로 나눠 총 72점의 작품을 분야마다 특색 있는 경매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경매에서는 부평영아티스트 선정작가인 김선우, 김원진, 혜순화, 박재영 등의 예술에 대해 새롭게 흥미로운 접근이 돋보이는 작품을 포함해 강지민, 문인환, 이경훈, 송광찬, 재미킴, 한아름, 우종택, 김이슬, 윤서희, 황재원, 예성호 등 신선하고도 작품성 높은 작가들의 특색 있는 작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1부 컨템포러리 세일은 총 34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지역 중견 작가들의 작품과

부평영아티스트들의 작품, 현대미술 아트신에서 미술 시장의 대안으로 주목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로 경매가 진행되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경매 형태인 2부 프리미엄 세일에는 총 9점이 출품되었는데 미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3부 스페셜 세일에는 27점이 출품되었으며, 모두 20만 원 미만의 그림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경매를 즐길 수 있었다. 이번 부평옥션에서는 비공개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인천대학교 우종택 교수의 2점 세트 기증 작품이 비공개입찰을 통해 추정가 선정 없이 최고가로 서면 입찰하는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경매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본 행사를 진행하기 전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자선 경매를 통해 작품을 집안에 들이며 더불어 기부의 기쁨도 누리 볼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는 '내 집에 그림 한 점,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따뜻한 문화행사'로서 역할을 다했다.



INTERVIEW



정규성 인천택주 대표이사
작년에 처음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작품을 사무실에 걸어두고 일 년 내내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번 경매에도 '번 만큼 기부한다'는 기업 원칙을 이루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성 작가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경매 수익금은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 더욱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주최측은 프리뷰전시에서 사전 서면응찰접수를 하거나 구매의사를 밝힌 고객들을 대신해 응찰했다.



김민서 경매사는 경쾌하고 명랑하게 진행해 자선 경매의 취지를 잘 살렸다.



이번 경매에는 평면회화 작품 외에도 도자 작품과 조소 작품도 볼 수 있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경매수익금 50%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INTERVIEW

임상희 작가

경매로 작품을 올려본 일은 이번 부평옥션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신진 작가로서 경매에 참여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경매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개인전에 올렸던 3개의 작품을 출품했고 2개가 판매되어 기쁩니다. 내년에도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에서 좋은 작품으로 시민들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경매의 재미와 더불어
예술의 대중화를 마련하다

3r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은 경매당일 현장 응찰을 하거나 경매 전 프리뷰전시에서 호감이 가는 작품을 눈여겨 보고 큐레이터나 직원의 도움에 따라 사전 서면으로 자신이 비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전 응찰을 통해 미리 접수하는 방식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이번 경매에 참석한 시민들은 작년보다 작품도 많아졌고 부평옥션에 참가하며 경매가 익숙해져서인지 더 재미있다고 평했고, 경매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이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에 보답하고 그간 감사의 마음을 밝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지역과 작가, 참여기관 모두가 즐겁게 참여한 부평옥션은 예술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부평옥션의 취지는 희소가치가 있는 작품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아 소장하는 기쁨과 함께 낙찰자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되는 보람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매 수수료 대신 수익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방송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김민서 경매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을 맡았는데,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경매 과정을 밝은 미소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순발력 있게 진행하면서 자선 경매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서 경매사는 번호가 매겨진 작품을 호가하면서 경매가 낙찰되었을 때마다 유쾌하게 낙찰 봉을 두드리며 현장의 활기를 더했다. 한편 지난 11월 17일부터는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경매 출품작의 컨디션을 살펴볼 수 있는 프리뷰전시를 진행했다. 경매 당일 공개 응찰 외에 프리뷰전시 기간 내 전시장에서 사전 서면 응찰을 받았으며 경매가 끝난 후 유찰 작품은 애프터 세일로 진행되었다. 그림 한 점으로 예술가, 시민, 어려운 이웃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되는 소망을 품고 있는 부평. 이번 '3r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에서 예술가들의 그림 한 점이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는 사회적 가치가 되고 미술의 저변 확대에 새로운 시도가 되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평구문화재단· 신한카드 ‘함께 나누는 따뜻한 부평’을 위한

부평나눔카드 제휴 협약식 개최

부평구문화재단과 신한카드 인천지점은 지난 10월 17일 ‘부평나눔카드’ 제휴 협약식을 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부평’ 만들기에 함께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운 신한카드 인천지점장과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황영진 신한은행 부평구청 지점장, 이찬선 부평구자원봉사센터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운 신한카드 인천지점장은 “부평나눔카드를 통해 부평구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를 나누고 부평이 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하고 부평나눔카드 회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해 후원회 결성에 이어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기부에 참여하는 시민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협약을 맺는 부평나눔카드 또한 지역 문화를 위한 자원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부평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진 신한은행 부평구청 지점장은 “구 금고 은행으로서 구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부평나눔카드 사업을 계기로 부평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평나눔카드’ 사업은 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부평구문화재단에 지정 기부 방식으로 기부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를 증진시키는 구조이다. 연간 카드 가입자 2,000명까지는 전체 카드 사용 금액의 0.1%에 해당되는 금액을 문화재단에 기부하고, 2,000명 이상 5,000명까지는 0.2%, 5,000명 이상은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게 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기부받은 재원을 지역 문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향후 기부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부평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나눔카드는 신한카드사로 직접 문의 후 가입이 가능하며 부평구에 있는 모든 신한은행 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신한카드 이용자는 신한카드사(1544-7000)로 전화하면 바로 부평나눔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평나눔카드에 가입하게 되면 부평구문화재단이 기획한 유료 공연 프로그램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와 협약이 되어 있는 부평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평나눔카드에 대한 문의는 신한카드사와 부평구의 신한은행 모든 지점 및 부평구문화재단과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한국 화단의 미래가 될,

두 번째 부평영아티스트를 만나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젊고 유능한 현대미술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부평영아티스트 2기’ 공모전을 개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5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부평영아티스트 2기’는 김선우(28, 평면), 김원진(28, 복합설치), 다니엘경(37, 복합설치), 박준화(38, 평면), 해순황(35, 설치)로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차 작가별 작품 프레젠테이션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작가적 역량을 가늠·선정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16명을 선정하고, 비평가, 회화 전공 교수와 미디어 아트디렉터 등을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작가별 작품 프레젠테이션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부평영아티스트 2기, 한국 화단의 미래로서 자리하기를 기대하다

이번에 선정된 부평영아티스트 2기는 아직 미술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진입했으나 실전적 단계로 그 영향력을 지속하지 못하여 흐름이 끊겼지만 부평구문화재단을 매개로 한국 화단의 미래가 될 만한 가능성을 가진 작가들로서 공모전의 취지에 걸맞게 그동안 쌓아온 미학적 성취보다는 부평영아티스트로서 향후 펼쳐 나갈 미학적 잠재력에 큰 점수를 받았다. 부평영아티스트 2기에 선정된 5인은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작가전’을 통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에서 관람객들을 만났고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작가는 향후 부평구문화재단과 함께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작품력, 기획력, 마케팅 능력을 제고하는 한국 화단의 미래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후 향후 진행되는 기획전시와 여타 프로그램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얻게 된다.

부평영아티스트 2기 최종 선정작가, 다니엘경

부평영아티스트 2기 최종 선정작가는 심사위원 점수 70, 관람객투표 점수 30의 합산으로 결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다니엘경 작가는 김원진 작가와 관람객 투표 1표 차이의 기록이었으나 심사위원 점수와의 합산으로 최종 작가로 선정되어 상금 300만 원과 함께 2017년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작가전 개최 전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심사를 맡은 공주형 교수(미술평론가, 한신대학교)는 “부평영아티스트 신진작가 공모가 지원자와 선정자 모두에게 지금까지 해 온 작업 전반을 겸허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치밀하게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신진작가들이 상대방의 존재를 격려하고 서로의 예술에 조언을 주고받는 고단한 여정의 길동무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조언했다.



박준화



해순황



김선우



김원진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드림 시민회원 가맹점

‘문화나비’ 1호점 현판식 개최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9월 27일 부평구 경원대로에 위치한 ‘부일 식당’에서 부평구문화재단 시민회원 가맹점 ‘문화나비’ 제1호점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시민회원 모집과 ‘문화나비’ 사업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 최도현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장(주식회사 대원 인물 대표이사)과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노태손 부회장(뱅크빅문고 대표), 한정철 부일 식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도현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장은 “부평의 문화예술 발전에 뜻을 함께 하는 많은 분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 해 동안 따뜻한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2016 후원의 밤’ 개최

부평구문화재단이 후원회원과 시민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16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후원회원 및 시민회원 확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월 8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는 행사를 시작하기 전 흥미영 구청장, 임지훈 구의회의장, 최도현 후원회장 등과 후원회원, 시민회원, 예비 후원회원·시민회원 등 50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해 활기를 더했다. ‘2016 후원의 밤’ 행사를 따뜻한 감사의 시간으로 마련했는데 행사는 1부 리셉션, 2부 특별공연으로 구성되었다. 리셉션은 해누리 로비에서 간단한 다과회를 진행했고 회원간 환담과 건

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문화나비’ 가맹점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작년 후원회 결성 이후 현재까지 2억여 원의 기금을 모금하고, 이미 부평구민들을 위한 문화 사업을 위해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회원이 활성화되면 부평 구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기부에도 참여하게 되어 그 뜻이 더욱 깊으므로,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시민회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정철 부일 식당 사장은 “우리 부일 식당이 시민회원 가맹점 ‘문화나비’ 사업의 1호점으로 현판식을 갖게 되어 큰 영광이다. 미약하지만 작은 정성과 참여가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문화나비’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회원 가맹점 ‘문화나비’ 사업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작년부터 시작한 자원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소액기부를 통해 지역문화 확산에 직접 참여하는 ‘아름다운 참여 시민회원제

(CMS)’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문화나비’는 시민들의 작은 참여가 나비효과를 일으켜 부평구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문화도시 부평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화나비’ 사업은 지역의 음식점이나 점포, 기업들이 시민회원(3만 원 CMS 회원)으로 가입하고, ‘문화나비’ 현판을 정문에 부착하며 동참할 수 있는데 ‘문화나비’에 동참하는 업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2015년 결성된 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부터는 시민회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50여 명의 후원회원과 70여 명의 시민회원이 가입했으며 2억여 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문화나비’ 가맹점과 시민회원 기금이 조성되면 후원회 기금과 함께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귀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문화드림 후원회 및 시민회원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032-500-2081)를 통해 가능하다.



2016 예술경영 컨퍼런스, 우수사례 선정

부평구문화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 수상



부평구문화재단은 ‘2016 예술경영 컨퍼런스’ 공모에 ‘지역가치재창조, 부평구문화재단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주제로 참가, 우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인증 받은바 있다. 이에 부평구문화재단은 11월 28일(월) 오후 2시,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열린 우수사례 발표에 참석해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우수한 예술경영 사례를 발굴, 육성하고자 2012년부터 ‘예술경영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로 5회를 맞이하는 ‘2016 예술경영 컨퍼런스’는 선정된 10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현장에서 5명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대표상을 심사·표창하였고 부평구문화재단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900여 개가 넘는 전국의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사례 추진을 위한 노력, 사례의 독창성, 서류 완성도 및 추진 과정의 합리성, 영향력 및 확장성, 지속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최종 10개의 예술경영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있다. 수상의 영광을 얻은 부평구문화재단은 명실상부 예술경영 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자리하게 되었으며, 박옥진 대표는 “900여 개가 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전국의 광역, 기초 문화재단 중 부평구문화재단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지역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시민들과 함께 더욱 가치 있는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사업명 슬로건 공모전’

“음악도시 부평,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사업명,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공모전은 ‘음악도시 부평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라는 부제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의 친근한 사업명과 슬로건 개발을 통해 음악도시

로서 부평의 도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의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은 부평구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부평구문화재단 주관 하에 진행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인천광역시와 부평구가 주최한다. 부평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및 발전’을 목표로 하며 미군 부대를 시작으로 생겨난 음악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누구에게나 공유되고 향유될 수 있는 ‘문화 창조 공유도시 부평’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공모 주제는 부평 음악·융합도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명칭 및 문구,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명칭 및 문구, 다양한 홍보물에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조화로운 명칭 및 문구를 공모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업명에는 홍승민 씨가, 슬로건에는 한상원 씨가 각각 선정되었고 지난 10월 7일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공모전 수상작은 이후 상표권 등록과 BI디자인을 개발하게 된다.

사업명 : 홍승민
“뮤직시티(MusiCity)”

MusiCity 부평

MusiCity라는 조어를 만들었다. 뮤직시티는 부평이 꿈꾸는 음악 산업의 성장, 다양한 문화예술 전개, 음악을 통한 하나됨 등을 도시의 비전으로 표방한다.

슬로건 : 한상원

“음악소리 라라라, 부평누리 하하하”
음악소리를 듣고 웃노래를 흥얼거리는 즐거운 곳, 다같이 음악과 문화를 즐기는 공감의 도시, 음악도시 부평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표현했다.



미리 보다

2017년 부평구문화재단은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 국악으로 신년의 문을 연다.
그리고 부평작가들의 숨으로 탄생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아이들에게 놀이와 배움을 체험할 수 있는 무한상상력의 놀이터로 자리한다.
특별히 2017년은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을 다양한 음악회에 주목해보자.
감동과 배움, 행복이 넘치는 곳
부평구문화재단의 2017년이 벌써 즐겁다.

What's Next

2017 신년음악회
양희은 콘서트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음악회
명랑운동회
2017 부평키즈 페스티벌
2017 부평작가열전 - 네 번째 이야기

Calendar

WHAT'S NEXT 1



일시
1.19(목)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2만 원,
시아장애석 1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국립국악관현악단, 장사익,
사회자 주희중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 국악으로 여는

2017 신년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17 새해맞이 신년음악회!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2017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쉽고, 즐겁고, 재미있는 레퍼토리를 통해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국악 관현악곡들로 선별하여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는 역동적인 국악관현악곡 <깨어난 초원>과 <말발굽 소리>를 연주한다. <깨어난 초원>과 <말발굽소리>는 몽골 민족음악을 편곡한 곡으로 새해의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 안수련의 해금 협주곡 <독백>, 국립창극단 스타 소리꾼 이소연의 <쑥대머리>, <사랑가>를 선보이며, 소리꾼 장사익과의 협연 무대에서는 <찔레꽃>, <티끌 같은 세상 이슬 같은 인생> 등 총 4곡을 선보일 예정이며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만드는 무대와 국악관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뱃노래> 등으로 신년을 웅장하게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WHAT'S NEXT 2



따뜻한 음악으로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

청년의 마음을 노래로 전하는 대한민국 포크의 대모, 한국의 조안 바에즈(Joan Baez) 양희은이 부평아트센터 무대를 찾는다. 그녀의 대표곡은 1976년 <내꿈을 펼쳐라>, 1983년 김희갑의 곡에 직접 작사한 <하얀목련>, 1991년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곡에 가사를 붙인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2008년 40주년 기념음반 타이틀곡으로 알려진 강영국 작곡의 솔로우락 장르의 곡 <내나이 마흔살에는>, 2015년 김니영 책에서 발췌하여 작사한 <나영이네 냉장고>, 그 외에도 <슬픔 이젠 안녕>, 김아영 작곡의 <밤뱃놀이>, 채지성 작곡의 <님찾아 아리랑>, 정신소아과 전문의 인 전직 그룹 동물원 출신의 김창기 작곡의 <엄마가 딸에게>, 본인이 직접 채보한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등으로 양희은은 우리나라 가요계에 영원히 남을 명곡들을 부르고 만든 주인공이다.

이번 공연에서 그녀는 <아침 이슬>, <행복의 나라로>, <상록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아름다운 것들> 등 히트곡 퍼레이드를 펼칠 것으로 우리 시대와 모든 세대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담긴 따뜻한 음악이 관객에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포크 뮤지션

양희은 콘서트



일시
3.25(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6만 원,
S석 5만 원, 시아장애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WHAT'S NEXT 3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와 펼치는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콘서트

인천의 대표 복합 문화 공간, 부평아트센터는 문화예술인의 활동 공간 및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최고의 스텝진과 최첨단의 무대시스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추고 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전시를 제공해온 부평아트센터가 벌써 7주년이 되었다. 이를 기념해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가 총 출동해 콘서트를 펼친다.

클래식 대중화의 선두주자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8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주역상에 빛나는 국내 최고의 바리톤 우주호, 감성과 지성을 겸비, 뛰어난 테크닉과 구성력, 통찰력과 섬세함으로 매력적인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재혁, 뮤지컬계의 보석같은 디바, <몬테크리스토백작>, <아이다>, <레베카>, <위키드> 등에서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로 관객을 압도하는 차지연, 뮤지컬 <노트르담드 빠리>, <모차르트>, <헬릿> 등에서 깊은 울림의 목소리를 전했던 뮤지컬 스타 윤형렬이 환상의 하모니를 펼친다.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4.8(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VIP석 5만 원, R석 4만 원, S석 3만 원,
시아장애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모스틀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우주호,
조재혁, 차지연, 윤형렬

※ 위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연주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WHAT'S NEXT 4



무한상상력의
놀이터로 변신한 미술관

명랑 운동회

일시
4.27(목)~5.28(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쑹쑹 쑹쑹 명랑 운동회

가정의 달, 무한상상력의 놀이터로 변신한 미술관에서 노는 시간

'쑹쑹 쑹쑹 명랑 운동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미술관이 우리네 아이가 제물로 움직이고 사색하는 공간 '놀이터'와 '아이 방'으로 무한 변신하는 놀라운 체험형 복합미술전시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은 어른으로서 예술적 욕심을 덜고, 아이들의 눈으로 본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체험을 펼친다. 전시는 우리네 아이들 시선으로 고민해 놀이터를 '쑹쑹, 꿈꾸는 곳'으로, 아이 방을 '쑹쑹, 머리 좋은 방'으로 마법처럼 미술관을 변신시킨다.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의 한글, 알파벳과 숫자를 두고 창작한 글자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과 그 작품들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그려내는 다양한 경험들로 색다른 시간이 될 것이다.

WHAT'S NEXT 5



행사

초록누리축제

5.5(금) 14:00~18:00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전시

명랑운동회

4.27(목)~5.28(일)

꽃누리갤러리

공연

레이디버그

5.12(금)~13(토)

해누리극장

R석 3만5천 원, S석 2만5천 원

우리엄마

5.6(토)

달누리극장

전석 1만5천 원

복적복적 키득키득 예술과 놀자!

2017 부평키즈 페스티벌

어린이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

<부평키즈페스티벌(BUKIF)>은 2014년에 부평구문화재단이 처음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한 축제로,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아트센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립도서관 등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한다. 2017 제4회 <부평키즈페스티벌(BUKIF)>은 온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어린이가 가장 행복한 날 5월 5일!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즐기는 신나는 소풍같은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어린이 그리기 대회, 체험, 놀이, 장터, 공연, 거리극, 퍼포먼스 등 다양한 야외 무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WHAT'S NEXT 6



부평작가열전 네 번째 이야기

부평작가들의 숨으로 탄생한 작품들로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는 시간

부평작가열전은 2014년 시작된 이래 '함께 만드는 지역미술의 최선을 조화'를 이루고자 지역의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새로운 주제와 함께 자신의 삶과 조형성의 탐구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창조한 지역의 역량있는 작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이다. 부평 작가들의 삶과 지역적 특색이 오롯이 녹아있는 작품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숨쉬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싱그러운 봄바람을 미술관에서 먼저 느껴보자.

부평작가들의 숨으로 탄생한

2017 부평작가열전 네 번째 이야기



일시

2.23(목)~3.26(일)

10:00~18:00

*오프닝 초대 2.23(목) 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CALENDAR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우리 국악으로 여는

2017 신년음악회



일시	1.19(목)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2만 원, 시아장애석 1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국립국악관현악단, 장시익, 사회자 추희중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2017 새해맞이 신년음악회!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 2017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쉽고, 즐겁고, 재미있는 레퍼토리를 통해
시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국악 관현악곡들로 선별하여
들려준다.
이번 공연에는 역동적인 국악관현악곡 <깨어난
초원>과 <말발굽 소리>를 연주한다. <깨어난 초원>과
<말발굽소리>는 몽골 민족음악을 편곡한 곡으로 새해의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국립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 안수련의 해금 협주곡 <독백>, 국립창극단 스타
소리꾼 이소연의 <쑥대머리>, <사랑가>를 선보이며,
소리꾼 장시익과의 협연 무대에서는 <썰레꽃>, <티끌
같은 세상 이슬 같은 인생> 등 총 4곡을 선보일 예정이며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만드는 무대와 국악관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뱃노래> 등으로 웅장하게 신년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드로잉 퍼포먼스

어린이 드로잉쇼



일시	1.18(수)~1.21(토) 평일 11:00 / 토 11:00-14: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가

미술과 무대의 환상적인 만남
전 세계가 인정한 원더풀 드로잉쇼
미술 같은 미술, 온 가족이 행복한 공연
<어린이 드로잉쇼>는 인기 어려운 초고속 드로잉, 그림의
순간 변신 등 장면마다 예상을 뒤엎는 미술 같은 미술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웃음과 감동을 전달한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캔버스에 붓을 대는 것을
시작으로 썬마다 바뀌는 다양한 소재와 기법, 그리고 특수
효과까지 더해져 관객들은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CALENDAR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부평작가들의 숨으로 탄생한

2017 부평작가열전_네 번째 이야기



일시	2.23(목)~3.26(일) 10:00~18:00 *초대 2.23(목) 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부평작가열전 네 번째 이야기
부평작가들의 숨으로 탄생한 작품들로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는 시간
부평작가열전은 2014년 시작된 이래 '함께 만드는
지역미술의 최선을 조화'를 이루고자 지역의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새로운 주제와 함께 자신의 삶과 조형성의 탐구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창조한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이다. 부평 작가들의 삶과
지역적 특색이 오롯이 녹아있는 작품들을 통해 지역과
함께 숨쉬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싱그러운 봄바람을
미술관에서 미리 느껴보자.



놀이와 연극을 체험할 수 있는

2017 봄방학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일시	2.20(월)~2.24(금) 11:00~12:30(3-4학년) 14:00~15:30(1-2학년)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 1-2학년, 3-4학년 각 반 13명
참가비	5만 원(5회, 90분 수업)
문의	032-505-595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극놀이교실은
책과 이야기의 내용을 소재로, 놀이와 연극적 활동으로
구성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CALENDAR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포크 뮤지션

양희은 콘서트



일시	3.25(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6만 원, S석 5만 원, 시아장애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청년의 마음을 노래로 전하는 대한민국 포크의 대모, 한국의 조안 바에즈(Joan Baez) 양희은이 부평아트센터 무대를 찾는다. <아침 이슬>, <행복의 나라로>, <상록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아름다운 것들> 등과 같은 히트곡 퍼레이드로 우리 시대와 모든 세대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담긴 따뜻한 음악이 관객에 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몸을 깨워 예술로 입히다

연극인재교육프로그램



일시	3.13(월)~3.16(목) 14: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대상	지역 내 연극인
참가비	2만 원(4회)

지역 내 연극인을 대상으로 신체 움직임 및 발성, 화술 등의 워크숍 운영



음악감수성 교육

오디



일시	3.16~5.25 매주 목요일 11:00~11:45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4~5세 유아+엄마 10명
참가비	12만 원(12회, 45분 수업)
문의	032-505-5951

멜로디, 리듬감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민감한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계발하고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마음으로 이해하고 상상하게 하는 오디에이션 음악 감수성 교육프로그램.



과정드라마형 연극놀이 프로그램

어디어디 숨었나



일시	3.25~6.3 매주 토요일 10:30~12: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학교 1~2학년 12명
참가비	20만 원(10회, 120분 수업)
문의	032-505-5951

간질간질 감각을 깨우고 공공 숨겨둔 마음 속 감정을 꺼내보며 마음껏 상상하고 표현해보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CALENDAR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음악회



일시	4.8(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VIP석 5만 원, R석 4만 원, S석 3만 원, 시아장애석 2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모스틀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우주호, 조재혁, 차지연, 윤형렬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와 펼치는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콘서트 클래식 대중화의 선두주자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내 최고의 바리톤 우주호, 피아니스트 조재혁, 뮤지컬계의 디바 차지연, 뮤지컬 스타 윤형렬이 전하는 환상의 하모니.



무한상상력의 놀이터로 변신한 미술관

부평키즈페스티벌 <명랑운동회>



일시	4.27(목)~5.28(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쑹쑹 쑹쑹 명랑운동회. 가정의 달, 무한상상력의 놀이터로 변신한 미술관에서 노는 시간. “쑹쑹 쑹쑹 명랑 운동회”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렵고 딱딱하기만 한 미술관이 우리네 아이가 제풀로 움직이고

사색하는 공간 ‘놀이터’와 ‘아이 방’으로 무한 변신하는 놀라운 체험형 복합미술 전시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은 어른으로서 예술적 욕심을 덜고, 아이들의 눈으로 본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체험을 펼친다. 전시는 우리네 아이들 시선으로 고민해 놀이터를 ‘쑹쑹, 꿈 꾸는 곳’으로, 아이 방을 ‘쑹쑹, 머리 좋은 방’으로 마법처럼 미술관을 변신시킨다.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의 한글, 알파벳과 숫자를 두고 창작한 글자 일러스트레이션 작품들과 그 작품들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그려내는 다양한 경험들의 색다른 시간이 될 것이다.



일상의 기록, 예술

일상을 찍다_사진과 이미지



일시	4.4(화)~5.23(화) 매주 화요일 19:30~21:30
장소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C
대상	성인
참가비	8만 원(2개월 8회)
문의	032-500-2063

카메라 메카니즘 및 영상언어와 이미지 강의를 통해 촬영하고, 일상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강의로 풀어낸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접수



무대 위 내가 만든 이야기

2017 사랑방 인형극단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브런치 콘서트

리멤버 클래식

일시	리멤버 클래식, 드뷔시 4.27(목) 11:00 리멤버 클래식, 루치아노 파바로티 5.25(목) 11:00 리멤버 클래식, 리스트 VS 파가니니 6.29(목) 11:00
장소	4.27(목)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5.25(목), 6.29(목)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5천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머핀을 제공합니다.

넷째 주 목요일 11시에 만나는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콘서트

음악으로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는 그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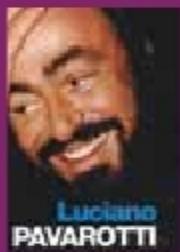


리멤버 클래식, 드뷔시

4.27(목) 오전 11시

팝 아티스트 윤한을 통해 듣는 드뷔시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
영화 트와일라잇 OST로 화제가 된 드뷔시의 대표곡 <달빛>.
드뷔시는 마네나 모네, 반 고흐 등 인상주의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음악을 그려냈다. 그의 명곡과 미술 감상을
팝 아티스트 윤한의 감미로운 해설과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만나본다.

출연진 피아니스트 윤한 외



리멤버 클래식, 루치아노 파바로티

5.25(목) 오전 11시

우리의 영원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서거 10주년 기념콘서트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불렸던
파바로티는 하이 C의 제왕,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며 최대 테너 앨범
판매왕의 기록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특유의 인간미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테너로 기억되고 있는 파바로티의 삶과 그가 생전에
가장 사랑한 애창곡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출연진 테너 하만택 외



리멤버 클래식, 리스트 VS 파가니니

6.29(목) 오전 11시

19세기 가장 강렬했던 두 남자의 귀환,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와 전설의 피아니스트 최대의 대결.
'최고의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가
동시대에 만나 한 무대에서 연주회를 가졌다면?'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을 꽃피운 '피아노의 왕자' 프란츠 리스트,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히며 미법에 가까운 연주 실력으로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별명까지 얻은 니콜로 파가니니.
그들의 기념비적인 음악을 대결 구도로 만나본다.

출연진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 피아니스트 박진우 외

일시	4.6~6.29 매주 목요일 16:00~18:0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12명
참가비	12만 원(12회, 120분 수업)
문의	032-505-5951

아이들이 이야기와 오브제를 직접 만들어 발표하는 인형극
제작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수업은 실제 무대 위 공연 발표로
마무리.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춤추는 사랑방_렛츠 탭



일시	4.25~7.25 매주 화요일 16:30~17:30(초등), 19:00~20:30(성인)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학교 1~6학년 및 성인 각 반 12명
참가비	12만 원(12회, 초등 60분-성인 90분 수업)
문의	032-505-5951

낯설고 어려울 것 같은 춤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즐기고 움직일 수 있도록 탭댄스의 기초부터 안무까지
지속적으로 익혀 무대 위 공연 발표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



자유롭게 즐기는 품격 공연

찾아가는 문화마실

사업기간	4월~12월
사업장소	부평문화사랑방 외 부평 관내 공연 가능한 유휴공간 등
공연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예술단체

부평 곳곳의 다양한 공간에서
즐겁고 편하게 즐기는 무료 공연!



CALENDAR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북적북적 킷킷 예술과 놀자!

부평키즈페스티벌 <초록누리축제>



일시	5.5(금) 14: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관람연령	전 연령

어린이와 온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
부평아트센터에서 즐기는 신나는 소풍. 2017 제4회
<부평키즈페스티벌(BUKIF)>은 온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부평구문화재단에서 즐기는 신나는
소풍같은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어린이 그리기 대회, 체험, 놀이, 장터, 공연, 거리극,
퍼포먼스 등 다양한 야외 무료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클래식 음악으로 펼쳐지는 음악 교육극

부평키즈페스티벌 <우리 엄마>

일시	5.6(토) 14:00,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티켓	전석 1만5천 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가

감성과 창의력이 쏙쏙!

아이와 엄마의 사랑, 최고의 스토리텔링 <우리 엄마>
공연은 파헬렐의 캐논변주곡, 베토벤의 비창소나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행진곡, 거쉬인의
랩소디 인 블루 등 널리 알려진 클래식 음악과 베란다
정원, 사랑해요 등 오디 노래를 반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들려주고 랩과 춤과 화음으로 경험하며 음악적 정서가
풍부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연이다.



부평키즈페스티벌 스타일리쉬 액션 뮤지컬

부평키즈페스티벌 <레이디버그>



일시	5.12(금) 11:00 5.13(토) 11:00, 14: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료	R석 3만5천 원, S석 2만5천 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관람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인기 애니메이션과 뮤지컬을 접목시킨
공연으로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타일리쉬 액션 뮤지컬, 레이디버그
탄탄한 스토리와 수준 높은 액션, 그리고 공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영상과 음악 등으로 완성도 높은 어린이
뮤지컬을 선보인다.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스토리텔링으로 어른과 아이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강렬한 와이어 액션과 수준 높은 안무를 구현하며,
입체 영상, 레이저쇼 등의 특수효과를 이용한
화려한 무대 연출로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 될 것이다.



부평의 밝은 미래를 노래하다

2017 부평술아술아음악제

일시	6월 초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관람료	무료
관람연령	전 연령

대중가요를 통해 치유 받고 힘을 얻어
함께 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
뿌리 깊은 부평 음악의 가치, 창조적인 도시발전의 길을
열 수 있는 <2017 부평술아술아음악제>로 고감의 자리를
마련한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호박 HoBAC 데이트_극장 책을 읽다

“한국 역사 길라잡이 큰별쌤” 최태성 편



일시	6.17(토) 15: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료	전석 1만 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올바른 우리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온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 EBS 간판 역사 강사이자 KBS 1TV '역사저널 그날'의 고정 패널, MBC '무한도전' TV특강 편에 출연하며 각종 매체를 통해 바른 우리 역사 알리기를 위해 노력하며 '초·중·고·성인

누구나 무료로 듣는 한국사 강의'라는 도전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명강사.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 올바른 역사 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



체험전시

모래야 놀자



일시	6.17(토)~8.27(일) 10:00~17:4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체험시간	100분
관람료	어린이 1만 7천 원, 어른 1만 2천 원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자연에서 온 친구 '모래'로 재미있게 똑똑해지는 오감만족체험놀이
가공되지 않은 자연에서 온 친구인 '모래'를 놀이 재료로 활용한 자연친화적 오감만족체험전시이다. 아이들은 보드라운 질감의 새하얀 모래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모래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훌륭한 교재이기도 하다. '모래야 놀자'는 인형극을 통해 모래가 어디서 왔는지를 배우고, 모래를 조물조물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린다. 단순한 모래 놀이를 넘어 화석 찾기, 색 모래 입체 캔버스 등 각기 다른 공간들을 오가며 끊임없이 다양한 모래 놀이를 즐기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고 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문화예술 동아리 모집

부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또는 생활예술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상시모집

신청방법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E-mail : chj2000@hanmail.net / 방문 : 부평아트센터)

제출서류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신청서 1부, 포트폴리오(활동 증빙자료)

등록대상 부평에서 활동 가능한 3인 이상의 문화예술 동아리
만 18세 이상으로 부평구에서 활동가능한 동아리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전통, 문학 등 문화예술 분야
순수 문화적 의미로 운영되며 사회봉사 또는 지역사회 공헌 의사가 있는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내용 동아리 워크숍 및 발표회 개최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 확대
축제, 공연, 체험마당 참여기회 제공

신청문의 부평구문화재단 지역문화사업팀 032-500-2061



2017
상반기

시즌
패키지

테마별
선택
패키지

브런치 패키지

세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리멤버 클래식
드뷔시
4.27(목)



리멤버 클래식
루치아노 파바로티
5.25(목)



리멤버 클래식
리스트 VS 파가니니
6.29(목)

키즈 패키지

세 작품 모두 선택 시 40% 할인, 두 작품 선택 시 30% 할인



드로잉 퍼포먼스
<어린이 드로잉쇼>
1.18(수)~1.21(토)



클래식으로 펼쳐지는
음악 교육극 <우리엄마>
5.6(토)



부평키즈페스티벌
액션뮤지컬 <레이디버그>
5.12(금)~5.13(토)

뮤직 패키지

세 작품 모두 선택 시 40% 할인, 두 작품 선택 시 30% 할인



신년음악회
1.19(목)



앙웨은 콘서트
3.25(금)



부평아트센터
개관 7주년 기념음악회
4.8(토)

자유 패키지

- 2017 상반기 기획 공연 5편 이상 선택 시 40% 할인
- 3편 이상 선택 시 30% 할인

스페셜
패키지

스페셜 얼리버드 티켓

1. 17(화)까지 모든 패키지 구매 시 기존 할인율에 추가 10% 할인

* 상반기 시즌 패키지 구매하신 모든 관객에게
부평구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보다'와 BP기프트 세트를 드립니다.

2017 상반기 시즌
패키지 예매 방법



엔티켓 enticket

- 전화예매 1588-2341 (온라인 예매 불가)
- 예매수수료
예매 건당 1,000원 고객 부담



주의사항

- 패키지 상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시야장애석은 패키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공연 일정 변경

- 해당 공연 3일 전 오후 5시 (3일 전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오후 5시)
- 공연 일정 변경 시, 해당 공연의 좌석이 매진일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후원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후원회 신청방법

- ① 방문신청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② 우편신청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③ 신청문의 032-500-2081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기업 / 개인	해누리 (5천만 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평생회원
	달누리 (2천만 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별누리 (5백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개인	구름 (3백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5년
	뫼 (1백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6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가람 (5십만 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3년

기본예우 홈페이지 후원사-기업명 표기, 홈페이지 후원회 페이지 운영 (소식 업데이트), 해누리공연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후원회 카드 발행

후원해주시는 분들

꽃누리	별누리	구름	뫼	가람
최도현 대한인물(주) 대표이사	홍종국 삼산월드컨벤션센터 대표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맹익재 클라이젠(주) 대표이사	신희석 아침을여는사람들 대표
노태순 생크릭문고 대표	박홍식 부평역사(주) 대표이사	대표이사	허난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윤대기 법무법인 로젤 변호사
성낙경 <주>한밭기술 대표이사	함국중 부원산업(주) 대표	박석범 인그리디언코리아	이해민	최창석 은성산업(주) 대표
서태호 <주>난다 고문	최주승 <주>대경아이스 대표	유진회사 이사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권복환 1금부평자동차공업사 대표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배정택 더메이스샵 대표	배수진 <주>송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강경애 리더산 우물물비	안종명 청수미크론 대표
이희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김종택 온세계고교 GVC 목사	대표이사	오케스트라 단장	신동백 십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정규형 의로법인 한길인과 이사장	최백경 <주>경인 대표이사	김효배 복구환경(주) 대표이사	박경윤 세무그룹토은 대표세무사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정환 <주>비메이지 대표이사	이승희 <주>두진금형 대표이사	전봉운 부평환경(주) 대표이사		조철애
이광복 동서식품(주) 대표이사	기종현 <주>연우 대표이사	한재현 동일환경(주) 대표이사		박영옥 삼우환경 대표
조덕형 <주>덕성그린텍 대표이사	성수일 삼정가스공업(주) 대표이사	안종현 한국그린환경(주) 대표이사		오종석 한국동운(주) 대표이사
		민병현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한유순 광원아트홀 관장
		정혜자 <주>삼원환경 대표이사		정지연 광원건설(주) 회장
		권영조 <주>평메디칼바이오 대표이사		이계찬 지인조강(주) 대표이사
				김유환 관세법인 사인 관세사
				황명희 가린텍스 세무사
				윤일영 문화환경국장
				이종권 호텔라움 대표



시민회원(CMS)약정 안내

약정금액

- ① 월단위 약정 금액
- ② 1구좌 5천 원 (5구좌까지 가능)
- ③ 기타 희망금액 약정 가능

기부자 예우

- ①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 ②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개(비공개로 신청 가능)
- ③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20~30% 할인

지정내용

기부금 사용을 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에 일임하여, 별도 조건없이 기부

관련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032-500-2081

CMS 운영절차

